

## 너무 늦기 전에

박 지숙

2015년 5월.

싱그럽게 피어오르는 봄,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열꽃이 피었다. 병원균 전파의 주요 진원지로 알려진 그 병원,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느끼는 공포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환자수와 격리자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방호복으로 감싼 의료진의 모습이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일 뉴스 머리를 장식하던 어느 날 저녁. 친정 엄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누님, 내가 그 동안 잘못했어요.....흑흑...”

어릴 적,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가 있던 4층짜리 상가건물은 지하부터 옥상까지 그 전체가 나와 오빠의 놀이터였다. 특히 2층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드나들었는데, 오후 햇볕이 유난히 따스한 그 사무실에서 나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좋았고 무엇보다도 단발머리 예쁜 경리사무실 이모가 미리 준비해 놓은 과자를 먹으면 지루한 숙제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이모의 퇴근을 기다렸던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 눈치 없이 끼어 맞난 저녁까지 얻어먹는 날엔 이모가 더욱 예뻐 보였다. 저녁을 먹고 우리를 데려다주는 길, 양 팔에 매달리고 장난치는 우리를 귀여워해주던 그 삼촌과 이모는 곧 결혼해서 꼭 오빠와 나 같은 아들딸을 낳을 거라 했다. 또 삼촌은 엄마의 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부모님 가게 한 구석에서 우리와 놀아주다가 밤늦게까지 가지 않고 기다려 이런 저런 인생 상담을 하다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들른 2층 사무실에 이모가 없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모는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모는 우리에게 과자를 들고 오는 것도 애처로워 보일만큼 아파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엄마가 망설이듯 말씀하셨다.

“당분간 이모를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숙제는 다른 곳에서 하렴.”

그 후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 무섭고 슬픈 것이었다. 그건 어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이었다.

그 당시 삼촌은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길가에 서 있는 무수한 전봇대들이 삼촌의 일터였다. 오빠와 나, 둘이 매달려도 끄떡없는 우람한 팔뚝을 보며 우리는 삼촌이 전봇대를 맨손으로 타잔처럼 오르내리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일주일 전 일어난 사고로 삼촌은 영원히 전봇대를 탈 수 없게 되었다. 고압 전류가 번개처럼 삼촌의 몸을 관통했고, 삼촌은 살아난 대가로 왼쪽 팔을 내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매달리며 놀았던 그 팔이 없어졌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나는 나를 매단 채로 삼촌 팔이 떨어지는 악몽을 꾸었다. 삼촌은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팔과 직장을 한꺼번에 잃은 남자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는 이모 부모님의 반대로, 둘의 결혼식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 일이 있고 한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이모는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다. 퇴원한 삼촌은 이모를 찾았지만 이모의 부모님이 행방을 알려줄 리 없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잊으라고 말하는 것 이외엔 별 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매일을 술로 살다 자살까지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삼촌을 보며 엄마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지.” 하며 안타까워 하셨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방황의 끝에 삼촌이 선택한 건 ‘복수’였다. 그건 사람에게 대한 복수도 사회에 대한 복수도 아닌 전기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전기가 내 팔도, 사랑도, 평범한 인생도 앗아갔으니 나는 그놈의 전기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겠다는 피맺힌 오기

였다.

변압기, 차단기 같은 전기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시공도 하는 종합 전기회사를 차린 삼촌은 그 후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은 수완이 좋아서 회사도 커지고 집도 커졌지만, 직원들 점심값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사장이라는 평판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만큼 독하게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며 늘 두둔하고 마음으로 지지하였다.

삼촌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건 십 년도 훨씬 지나서였다. 의수를 한 왼손이 꼼짝없이 바지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삼촌을 못 알아보았을지도 모를 만큼 삼촌은 많이 변해 있었다. 따뜻하고 다정하던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욕심과 독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은 오랜만의 재회를 기다리던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진짜' 사업은 밤에 그리고 주말에 한다고 했다. 그에게 돈을 벌어주는 건 일이 아니라 밤의 술자리, 주말의 향응이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총동원한 인맥관리와 그 틈을 메워주는 돈은 일종의 투자였다. 적절한 사람을 골라 잘 '관리'한 그의 투자는 대부분 성공했고, 돈에 장사 없고 돈 위에 사람 없더라는 그의 사업 철학은 선명한 이질감으로 저녁식사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그 뒤로도 종종 그는 우리 집에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왠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시절의 이야기는 이미 빛이 바래버린 듯했다. 삶에 배신당한 독기로 시작한 일이 돈을 벌어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두껍게 쌓아 올린 그 돈방석에서 나는 냄새가 못내 불편했다. 이만큼 벌었으면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쓰면서, 그동안 그 오기와 독기로 상처 준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살면 좋겠다고 어렵게 충고하시는 엄마에게 그는 "누님, 조금만 더 벌고요."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발전회사에 입사했다. 사회생활의 첫 문을 여는 파티에 참석한 삼촌은 "이제부터 잘 해보

자.”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그 말에 담긴 의미가 화끈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전기 자재 납품회사와 발전회사. 그 앞에서 심장이 불쾌하게 쿵쾅거리던 그 느낌은 삼촌과 내가 자주 만나지 못할 것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 신호였다.

본격적인 회사생활을 시작하면서 삼촌과 나는 역시 점점 멀어져갔다. 몇 번 삼촌의 연락을 거절하면서 어색해진 사이는 다시 몇 년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진짜 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더’ 버느라 동분서주 했고, 여전히 주위에 베풀 여유라고는 없는 ‘부자 가난뱅이’였다. 가끔씩 엄마가 가져오는 삼촌의 그렇고 그런 소식은 우리를 씁쓸하게 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듯 숨죽인 그 때. 뜬금없이 엄마에게 걸려 온 그 전화는 바로 삼촌의 것이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올 초에 자재 계약, 공사 수주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결국 납품비리,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아 구속된 상태였다. 그런데 재벌가 회장님들이 흔히 보여주는 모범대로 ‘건강상의 악화’를 이유로 입원을 신청했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의료서비스와 진료비를 자랑하는 병원에 드러누운 것. 그 때까지도 그는 이번엔 재수 없게 걸렸으니 액땀한 셈 치고 다음 사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누워있던 응급실에 2박 3일간 머물렀던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내려지고 추가 감염자가 속속 생겨나면서 그의 몸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환자와 근접한 병상을 쓰는데다가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면서 격리자로 명단에 오른 것. 아직 확진 판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메르스의 근원지인 중동의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리되지 않은 마지막을 갑자기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일까. 후회와 사죄로 시작되어 당부와 다짐으로 끝맺는 그의 전화를 받은 건 엄마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욕심과 부

당한 거래를 건디다 못해 뛰쳐나갔던 직원들,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한 친구들, 그의 밝고 깨끗했던 청년시절 모습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한 지인들.

생지옥이 된 그 곳에서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그는 그들과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었고, 설사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흔적을 조금 만이라도 지우고 싶었다. 그 동안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했지만 막상 링거를 꽂은 팔로 전화기를 들고 또 그 팔로 연신 눈물을 훔쳤을 그 모습을 생각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삼촌이 무사히 나와서 한 팔로도 정정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눈물의 속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삼촌은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고 몸도 회복되어 갔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 남은 기간을 채우러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메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통렬하게 되돌아보는 약이 되었을 것이다.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주고받았던 검은 약속은 능력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무능의 증거였음을, 돈 위에 사람 없었던 그의 주장은 가진 돈을 발판 삼아 무한한 욕심을 게걸스럽게 채우는 자기 자신과 거기에 장단 맞추는 세상을 향한 자위였음을 깨달았으니.

남이 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남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들 한다니까 하고 속닥거리며 양산해 내는 편법과 불법의 파편들이 우리 모두를 멍들게 하고 있다.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일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받는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위 갑과 을 모두의 노력이 필수일 것이다. 과거의 자신처럼 지금 이 순간도 알팍한 속임수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삼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더 늦기 전에 그들 가슴속의 양심의 심지를 돋우어 밝혀 보게 되기를, 그래서 자신과 같은 후회의 통한을 남기지 않기를 당부하지 않을까.

5월의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오후, 삼촌과 차 한 잔 편히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